

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재해대비 배수시설 점검

이지선 기자 / 입력 : 2024년 06월 10일(월) 16:59



© 성주신문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지난 4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성주지사 관내 성남배수장 점검을 실시했다.

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집중호우, 극한호우 등의 재해상황이 잦아짐에 따라 사전에 배수시설을 점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진행했다.

성주지사에서 관리하는 성남배수장은 유역면적 967ha, 수혜면적 94ha, 횡축사류펌프 1200mm×4대, 450mm×2대의 규모로 성주지사 관내 배수시설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시설이다.

이에 지사 직원들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동 매뉴얼과 시설물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.

이돈문 지사장은 “최근 기후변화로 재해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설물 사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재난대응 태세를 유지해 농민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